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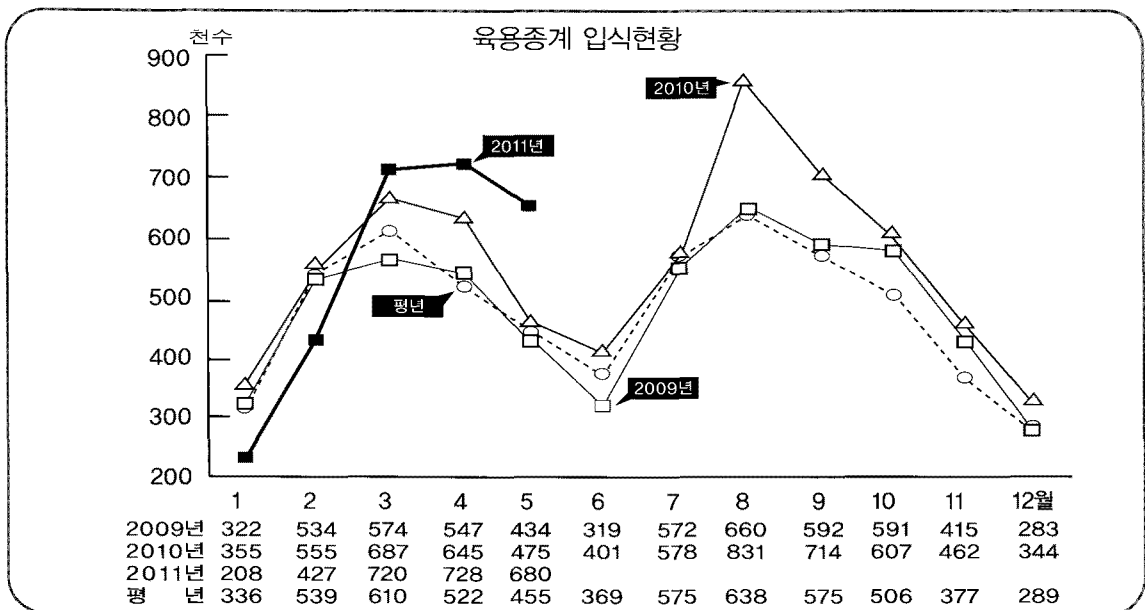


7월 닭고기 수급 전망

1. 육용종계 입식현황

■ 5월 육용종계 입식수수 전년동기대비 43.1% 증가

- 지난 5월 육용종계 입식수수는 67만9천8백수로 전년동기(47만4천9백수) 대비 43.1% 증가했으며, 이는 평년수준(45만5천수) 대비 49.4% 증가한 수준이다(4월 72만7천9백수 대비 6.6% 감소).
- 지난해 원종계 수입이 증가하면서 종계 생산잠재력이 높은 상황에서 연초에 주춤했던 종계 입식수수는 3월부터 증가해 계속 전년대비 큰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일부업체에서는 수입까지 추진하고 있어 당분간 종계 입식수수는 전년동기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 : 평년은 2006~2010년의 입식수수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

※자료 : 대한양계협회

2. 배합사료 생산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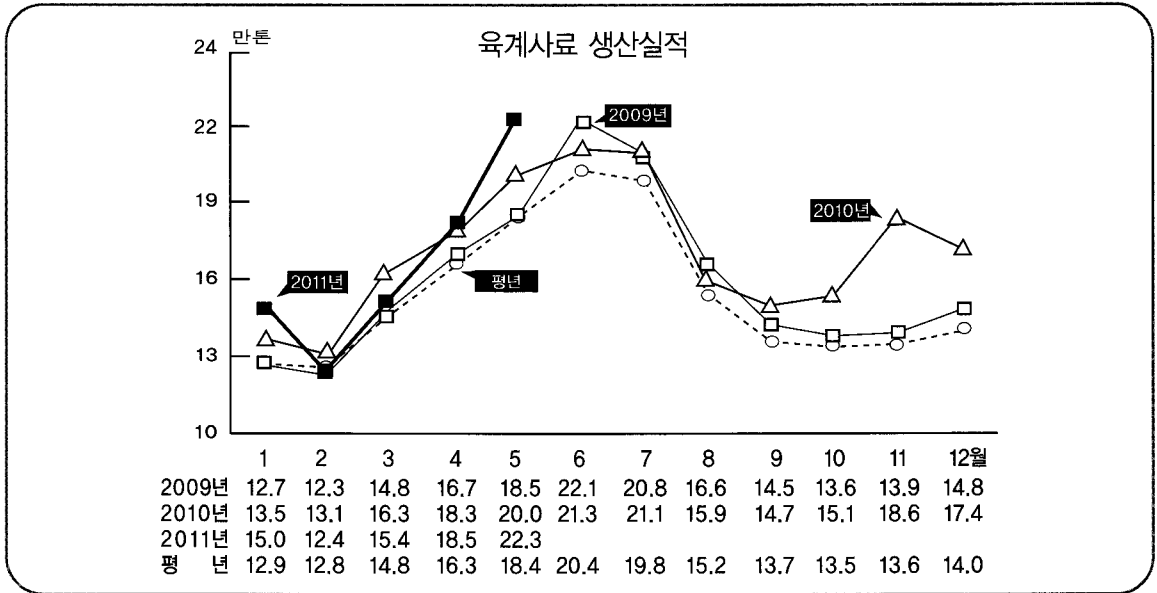
■ 7월 사육수수 전년동기보다 증가 전망

- 7월 닭고기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5월 육용종계사료 생산량은 23,916톤으로 전년동월(23,924톤) 대비 0.03% 감소했으며, 전월(26,207톤) 대비해서는 8.7% 감소했다. 이는 최근 병아리 가격 하락으로 노계군의 도태가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최근 생산성이 급격히 향상되면서 사료생산량은 전년대비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다.
- 한편 5월 육계 배합사료 생산량은 222,555톤으로 전년동월(199,529톤) 대비 11.5% 증가했으며, 전월(184,629톤) 대비해서는 20.5% 증가했다. 7월 육계사육 마리수는 사육마리수 증가와 생산성 향상으로 전년 동월 대비 8.2%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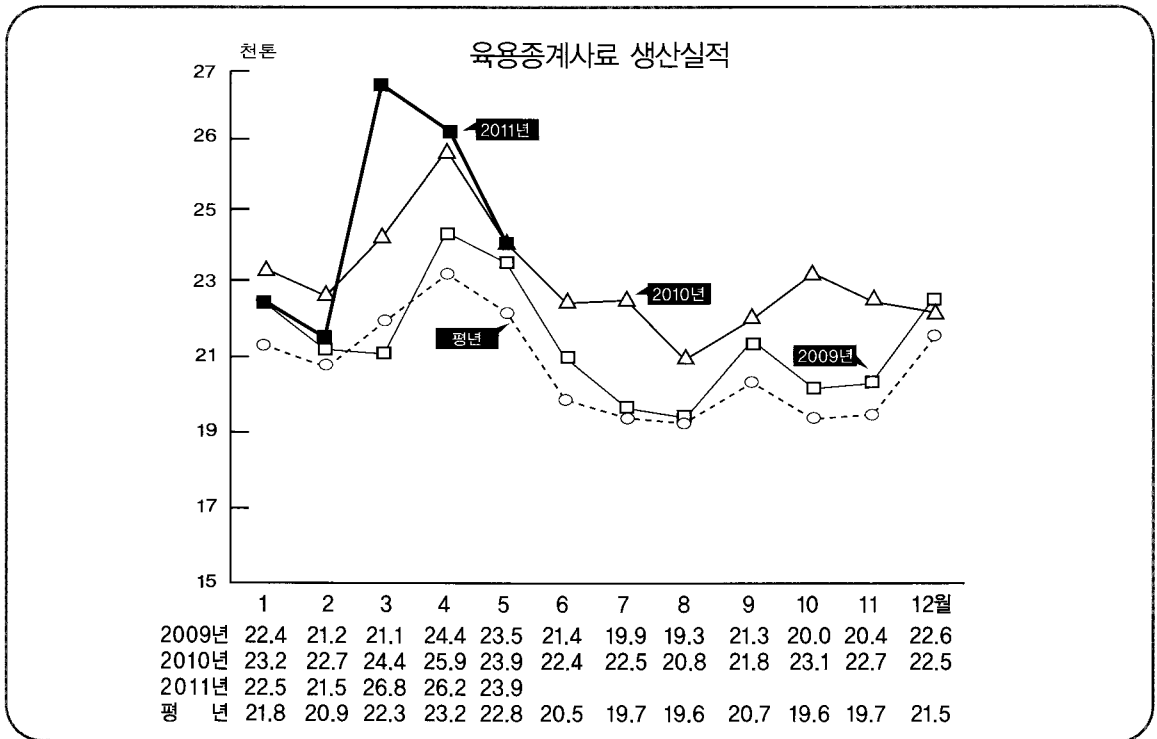
통계

7월 닭고기 수급 전망



※주 : 평년은 2006~2010년의 생산량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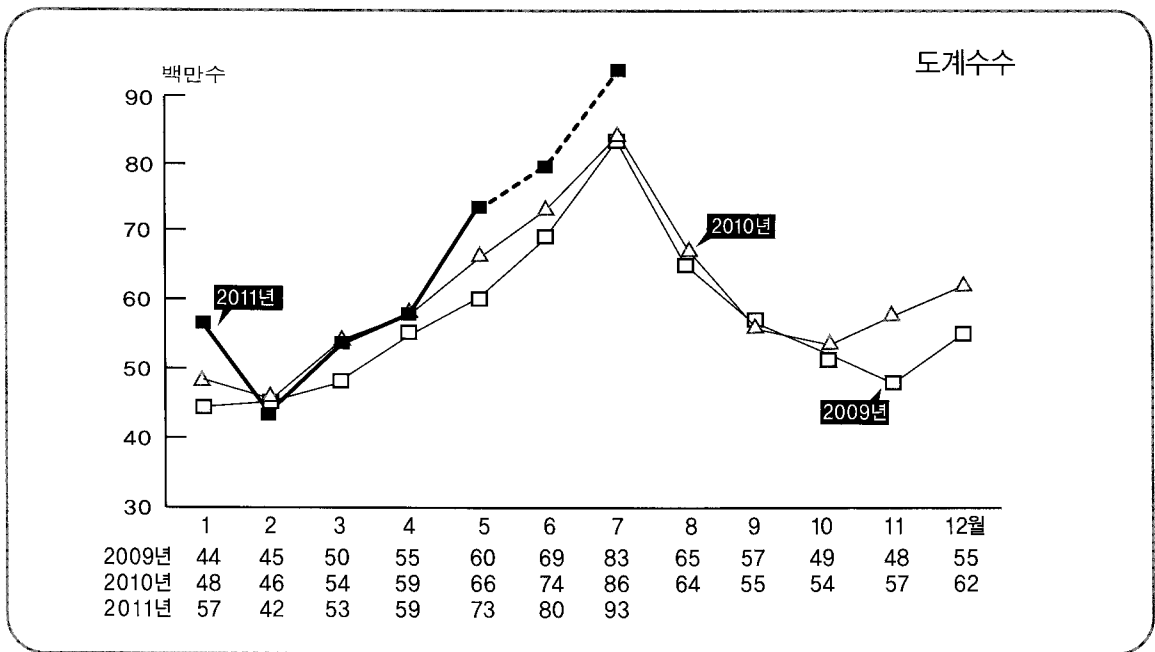
※주 : 평년은 2006~2010년의 생산량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3. 도계수수

■ 7월 도계수수 전년보다 증가할 전망

- 지난 5월의 도계수수는 7,293만수로 전년동월(6,620만수) 대비 10.2% 증가했으며, 전월(5,916만수) 대비 23.3% 증가했다.
- 7월에는 복수요 대비 병아리 입식이 증가하여 육계사육마리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도계수수는 9,326만수로 전년(8,604만수) 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료 : 농림수산물부(2011년 6~7월은 농경연 추정 및 전망치)

4. 닭고기 수입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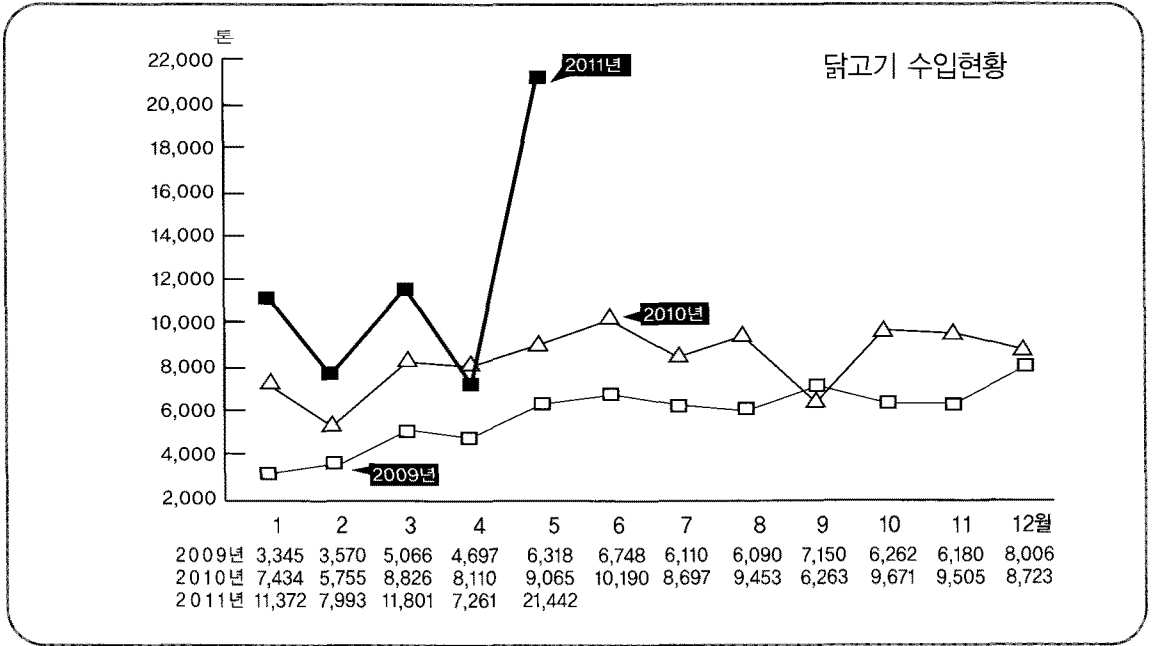
■ 7월 닭고기 수입량 전년대비 증가 예상

- 지난 5월에는 21,442톤이 수입되어 전년동월(9,065톤) 대비 136.5% 증가했으며, 전월(7,261톤) 대비해서는 195.3% 증가했다. 검역기준 수입량은 11,169톤으로 전년동기(7,796톤) 대비 43.3% 증가했으며, 전월(11,846톤) 대비해서는 5.7% 감소했다.
- 특히 물가안정 차원으로 정부에서 5만톤에 대해 무관세 수입을 추진하면서 초기에 수입량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국내산 가격이 크게 떨어져 6월에는 5월보다는 감소하겠으나 지난해보다는 크게 증가한 물량이 수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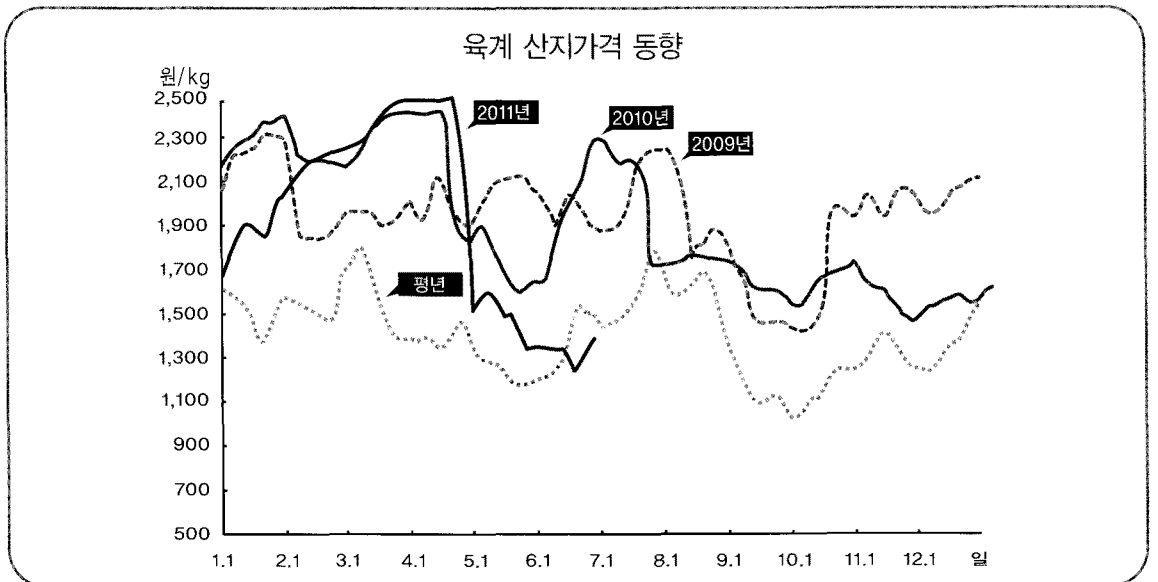
7월 닭고기 수급 전망



※자료 : 농수산물무역정보

5. 가격동향

■ 7월 육계 산지가격 평균 1,700~1,900원 전망



※주 : 평년은 2006~2010년의 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

※자료 : 농협, 축산물 가격정보(5일 이동평균가격)

- 지난 6월에는 전년도 초복물량과 비슷한 물량이 공급되면서 가격이 크게 하락했는데 그동안 높은 가격유지에 영향을 미쳤던 대체수요가 사라졌고, 전년대비 소비는 증가했으나 증가폭이 크지 않아 상대적으로 공급량이 과잉되면서 6월(1~30일) 평균 산지시세는 1,387원을 나타냈다(전년 6월 1,933원보다 28.2% 하락, 평년가격 1,497원 보다는 7.3% 하락, 전월 1,543원 대비 10.1% 하락).
- 7월의 경우 생산량은 6월에 비해 증가폭은 둔화되었으나 여전히 전년대비 증가해 물량부담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의 경우 평균적인 수준의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무더위가 이어질 경우 초복을 전후로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물량부담으로 큰폭의 상승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 7월의 육계 산지가격은 평년보다는 상승하겠으나 전년가격보다는 하락한 1,700~1,900원에서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전년 7월 가격은 2,043원, 평년가격은 1,743원).

6. 수급자료

〈육계 및 삼계 입식·비축현황〉

(단위 : 천수)

기간	육계						삼계					
	입식			비축			입식			비축		
	2010년	2011년	전년대비	2010년	2011년	전년대비	2010년	2011년	전년대비	2010년	2011년	전년대비
5. 16~5. 22	8,377	8,974	107.1%	2,017	2,351	116.6%	3,270	4,040	123.5%	1,463	753	51.5%
5. 23~5. 29	8,515	9,051	106.3%	2,394	2,325	97.1%	4,060	4,890	120.4%	1,274	845	66.3%
5. 30~6. 5	8,859	9,041	102.1%	2,508	2,680	106.9%	5,340	6,340	118.7%	1,436	1,484	103.3%
6. 6~6. 12	9,380	9,935	105.9%	2,448	2,817	115.1%	5,920	6,900	116.6%	1,214	1,565	128.9%
6. 13~6. 19	9,358	9,391	100.4%	2,335	3,269	140.0%	5,220	6,070	116.3%	1,171	1,496	127.8%

7. 결론

- 7월에는 입식증가가 계속되고 생산성도 향상되어 공급량이 전년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소비는 북경기가 있으나 평균적인 증가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보여 산지가격은 평년보다는 상승하겠으나 전년보다는 하락한 수준인 1,700원~1,900원에서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 다만 기상청에서 무더위가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도하고 있어 북기간 동안 시세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 시세변동요인

구분	생산(공급) 측면	소비(수요) 측면
인상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월대비 증가폭 크지 않음 - 사료가격 인상으로 인한 생산비 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더위 예보로 소비증가 - 북경기 수요 증가
하락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할당관세 수입으로 수입량 증가 - 생산물량 전년대비 증가 - 냉동비축 물량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자물가 상승으로 인한 소비침체